삼라만상이 모두 부처님

혜경 스님(화담정사 조실)

먹을 때 염불하면 뱃속이 극락

생명체 모두는 우주만물 중에서는 자기가 가장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의 욕망이 크고, 서로의 존재만 내세우다보니 부딪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욕망을 조금씩 억눌러야 합니다. 그것은 욕망을 없애라는 것과 다릅니다.

먹을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식물이나 동물을 해칩니다. 어떤 분들은 동물을 해치는 것에만 죄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식은 죄가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 식당에서는 항상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세요. 그래야 먹어도 극락이요, 뱃속도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581호 (2006년 6월 7일)

효란 스님(연천 오봉사 조실)

마음과 몸 던져 중생구제하라

불교란 내가 원하는 곳에 부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배워서 깨달음으로 구제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가 되는 제일 쉬운 길은 '본원(부처님의 마음)'을 믿고 '염불'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중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제하고야 말겠다는 맹세이자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염불은 '나무아미타불'의 여섯 자 명호인데, '나무'는 부처님의 마음이고, '아미타불'은 부처님의 몸체입니다. 즉 염불은 부처님께서 마음과 몸을 내던져 중생을 구제하시는 모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는 동안 나의 과거 80억겁의 업장이 소멸돼, 내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583호 (2006년 6월 21일)

원운 스님(서울 보문사 주지)

계율 바르게 이해하고 지켜야

불교 40년 만에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물질이 풍요로워졌지만, 범죄형태는 갈수록 악독해지고 기본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족해지는 일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공황이라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빠른 경제성장에 정신적인 성장이 발맞추지 못하고 뒤쳐져 있는 탓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교의 계율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직된 사고로 계율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계율은 분명 불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무작정 계율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지킨다는 것 보다 그것의 본뜻을 알고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587호 (2006년 7월 19일)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자식 앞에서 수행하라

요즘의 부모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인사를 안 해도, 쓰레기를 버려도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이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놀지 마라' '좋은 일 해라' 고 말해도 자식은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입니다. 그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푸른 허공과 같고 맑은 물처럼 의식이 깨끗하면 누가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집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그 속에서 알아차립니다. 부모가 참선수행을 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590호 (2006년 8월 9일)

천룡 스님(법주사 총지선원 한주)

人災가 축적되면 天災가 돼

인간은 인간중심의 논리로 환경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문화와 과학을 구실로 핑계만 댑니다. 자연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인재(人災)가 축적되면 천재(天災)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두가 하늘이요 부처요 보살입니다. 자연을 파괴한다든가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일입니다. 인간은 사유의 동물이기 때문에 고통이 지속되면 언젠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불교인들이 더 노력해야 합니다.

593호 (2006년 8월 30일)

도문 스님(장수 죽림정사 조실)

불사는 반드시 福으로부터 시작

불사(佛事)는 성불인연을 짓는 일이니, 불사수행이란 이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덕과 지혜인데, 불사는 반드시 복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복전(福田)을 알아야 합니다.

복전은 경전(敬田) · 은전(恩田) · 비전(悲田) 이렇게 삼복전(三福田)이 있는데, '경전'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며 예배하고 찬탄하여 참회 발원하는 것을 말하며, '은전'은 부모와 국가와 중생의 은혜를 모두 갚는 것을 말합니다. 또 '비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의지할 데 없는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입니다.

595호 (2006년 9월 13일)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6 · 끝>

연재를 마치며

"이 선생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습니다. 불교교리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어떻게든 설명해보겠는데 살아가면서 몸으로 부딪치는 문제들 앞에서 저는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연륜과 사회에서의 이력을 놓고 보자면 저는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애송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장경>에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간사 하나하나가 적혀 있어서 '그럴 땐 이렇게 살라'라든지, '그럴 땐 이렇게 대처하라'라는 처방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세계에 몸을 담고 지내오는 동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그 일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의 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불교교리 해박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던진 질문에 조심스레 내 생각을 털어놓을 때 의외로 불교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불교가 뭔지 대충은 안다고 하는 분들일수록 손사래를 칩니다.

"아, 그런 건 경전에서나 하는 말이고…."

또는 "역시 스님들 말이나 다를 게 없군. 아직 이 선생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요"라고 까지 말합니다. 이 말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경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놓고는 "그런 건 부처나 가능한 일이고, 살아 보슈, 그렇게 되는지…"라며 일소에 붙여버리는 일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제게 "살아보기는 뭘 살아봐? 그렇게 살다간 거지되기 십상이고 행복해지지 않는데…"라는 대답이 돌아오기가 다반사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깨달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세계를 만나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에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信)입니다. 당연히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덮어놓고 믿겠다는 것은 불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과연 부처님이란 분을 믿어볼만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부처님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해(解)입니다. 과연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아서 부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그 깨달음의 내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는다거나 강좌나 법문을 듣는 일입니다.

셋째는 실천(行)입니다. 경전에 쓰인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선업을 지어야 하고 팔정도를 실천하고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힘들거나 모욕을 잘 견뎌내고 쉬지 않고 노력하고 참선하고 지혜를 키우는 등의 6바라밀이 그것입니다. 이론으로 따진다면 참으로 싱겁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까짓 거 하자고 절에 다니고 불교 공부하느냐며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네 번째는 증명(證)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의 실천을 해 보았을 때에 자기가 선택한 믿음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인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사랑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도 진짜 사랑을 해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요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도 제 손으로 직접 반찬 한 가지라도 만들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팔만대장경>을 줄줄 외고 그 어려운 불교교리에 해박하다 하더라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습니다만 이 말 속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서 부처가 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 제가 쏟아낸 이야기들이 과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 경전을 뒤적이고 생각을 거듭해가는 동안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이 헛된 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에 취하여 지내오다 보니 제 공부가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건승을 빕니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귀사의 문을 두드리면 그때는 독자들의 시선이 가장 늦게 닿는 외진 지면을 다시 한 번만 제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